

광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

6000억원 투입 빛그린·진곡산단 연계 미래차 삼각벨트 구축
'인공지능 기반 한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실현' 꿈에 한 걸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무산...전남도, 정부에 추가 지정 촉구

광주시가 지난 3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한데 이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종·선정되면서 민선 8기 목표인 '인공지능(AI) 기반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실현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1호 상생협력 사업으로 적극 추진했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5곳과 반도체 특화단지 1곳으로 압축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충북 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경기 안성(반도체, 반도체 장비)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5곳이다.

반도체 등 첨단 특화단지는 ▲경기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경북 구미(반도체 소재)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북 정주(배터리 셀) ▲경북 포항(양극재) ▲전북 새만금(원료) ▲울산(셀, 소재) 등 7곳이며, 공동 유치에 나섰던 광주·전남은 탈락했다.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빛그린국가산단(184만7000㎡)과 진곡산단(190만9000㎡), 신규 지정된 미래차국가산단(338만4000㎡)을 연계한 220만여평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주시는 현대·기아차를 내세운 전통의 자동차 도시 울산과 수도권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 및 기아차를 앞세운 경기도 화성시 등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분야에 15개 기술을 지정해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한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43.1%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대표 도시로, 이번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기술 전환, 차세대 먹거리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특화 분야인 자율주행차 부품의 국산화를 당

초 50% 이하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기업 568개사의 미래차 전환, 앵커기업과 부품기업 간 밸류체인 완성 등에 따른 기술 개발 및 신제품 출시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부품 중 인지센서, 제어부품, 통신시스템 등도 특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는 1만6000명, 생산유발효과는 3조원, 부가가치효과는 1조원이다.

광주시는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선정된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과 주요 협력사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광주시가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70개사가 1조 9000여억원의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지역 부품기업 100여개사는 미래차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147개사는 새로 지정된 미래차국가산단 입주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표적으로는 완성차업체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앵커기업인 LG이노텍, 한국알프스 등이 이미 참여의향을 제출했으며,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월 미래차국가산단 신규 지정에 이어 이번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는 미래차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은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35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간절히 염원했으나, 정부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 전문인력 양성 체계 등을 갖춘 반도체산업의 최적지"라며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인 광주·전남에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20일 산업통상부 주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로 최종선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 대상지 중 한국인 빛그린 산단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달 미국서 열린다

안보·경제 협력 강화 등 예상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3국 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에서 3차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조율하고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3국의 전략적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미일 3국이 8월 18일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인 과제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초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행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

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미일 정상이 별도의 3차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

한미일은 그동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를 계기로 3차 회담을 열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로 표기했다.

1999년부터 개최됐던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DC와 보스턴을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다.

메릴랜드주 산속에서 자리한 캠프 데이비드는 1943년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역대 미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교사를 학부모 갑질에 명든다 ▶6면

복스 - '박물관이 살아있다' ▶14·15면

KIA 후반기 순위싸움 선봉에 산체스 있다 ▶18면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